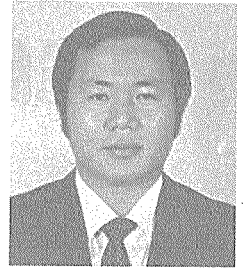


## '88년 전자산업을 돌아보며



趙錫九 / (株)인켈 代表理事·本會 理事

한국전자산업의 역사를 보면 일천하기 이룰데 없다. 그런데도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니 한편으로는 무척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50년대 후반 라디오 생산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자산업은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위치는 놀랄만큼 성장해 있다.

한 국가의 경제는 그 나라 첨단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 하면 한국의 경제발전도 전자산업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급속한 경제발전, 건실한 경제구조의 실현 등에 최첨단의 전자기술분야가 기여한 바 크다.

우리나라 전자수출 1억불을 달성하여 한때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던 1972년은 우리 전자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흑백TV 정도의 낮은 기술 수준으로 세계로 향한 한국 전자기술의 발걸음은 당시 미약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이후 4년후에 전자수출 10억불을 달성하면서 뭔가 중대한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정용전자의 첨단화, 산업용전자의 신규 참여, 부품산업의 육성 등 3개분야의 전자발전은 결국 '87년에는 섬유에 이어 두번째로 100억불 수출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급기야 '88년에는 섬유산업을 제치고 전자산업이 제1의 산업으로 부상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니 실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자산업에 참여한지 30년만에 전자수출 1억불을 달성하여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72년후 16년만에 아주 짧은 시기에 아주 빠른 속도

로 130배에 달하는 성장가도를 달려 왔으니 타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현실에 만족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한국의 제1의 산업으로 부상될 희망에 차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이의 내실성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86년부터서의 지속적인 무역흑자,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 등이 주변의 선진각국들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한 모양이다. 급격한 원화 절상, 미국의 종합무역법 발효, EC 제국의 블록화 추세 등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 연안국들의 세계로의 도전에 대한 강한 반발이라고 할까, '86년의 무역흑자후 선진각국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급변하면서 국내시장 개방 압력, 자국내의 무역장벽의 강화, 불공정무역 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이 날로 강화되어 가는 현 시점을 볼 때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

'89년 5월이면 美國이 우리나라를 불공정무역의 표본국가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90년대의 미국 경제전략」을 보면 우리나라의 對美 무역흑자 규모를 무조건 100억달러 규모로 축소하라는 식의 강경방안을 마련해 두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금까지는 쇠고기 시장,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각 품목별, 업종별로 개별적으로 무역흑자 규모를 줄일 것을 시도하였으나 이제는 아예 전체 규모로 따져 금액적으로 100억불 규모로 줄이고 차츰 금액규모를 줄여나가는 식의

정책 협의방식을 사용할 것이라 한다.

이러할 때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전자업체의 일반적인 경향이 對美 수출 의존형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자수출 정책에는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

국내의 수출 진흥정책 등 수출장려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종합무역법의 내용을 보면 어느 때까지 對美 위에서의 탈피는 불가피하다. 비록 세계 전자시장 규모가 43%가 미국이라 하지만 이것만을 생각하는 무역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의 전자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본을 따라잡아야 하는 바 이에는 우리 전자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내세워 이에 대처할 수 있다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품질우위의 제품정책만이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더해 갈 것이다. 대외 환경이 악화된다하여 도산되는 사례, 호전된다 하여 호황을 누리는 식의 급변하는 체제하에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 기란 힘들 것 같다. 최소한 우리 전자업체 만큼은 이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동종 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공동체 의식을 갖고 대외환경에 공동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내 동종업체간의 치밀한 경쟁양상은 상호 지양하고 국제화 시대에 타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좀더 발전된 안목을 갖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